

#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세계시민교육: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개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학과 석박통합과정 서다예

## < 목 차 >

- I. 서론
- II.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1. 세계시민교육의 의미
  - 2. 세계시민교육과 교회의 시민교육의 필요성
- III. 자유교육의 한계와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 1. 자유교육에서의 교육받은 인간의 한계
  - 2.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 IV.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시민교육과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 1.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민교육
  - 2. 기독교적 관점에서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 V. 결론

### I. 서론

전 세계가 하나의 사회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서 교육이 추구해야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또한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추구해야할 모습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질문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서 교육받은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인은 민주사회의 시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다. 세계시민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웃을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건전한 시민의 정신과 맞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세속 사회의 시민으로도 잘 살 것이지만, 그 반대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세속 사회에서의 시민의 모습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때때로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민주적이라는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다. 한국교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단기간에 엄청난 수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사회에서는 이에 걸 맞는 공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못하고 점차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되어 가고, 교회의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장신근, 2009).

110-111).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모범을 보였던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는 이기주의적 면모를 보이는, 즉 겉모습만 신앙인인 체 하는 모습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본래 목적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한국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와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인은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민주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날 국가와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면서 국가 안에서의 시민에서 세계시민으로 시민개념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시민교육의 접근 방식도 변화하였다. 오래전부터 살아온 땅에 대한 애착에서 나오는 민족주의적 애국심에 기초한 근대적 개념의 시민성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성이 요구되었다. 변화된 시민성 개념에 맞게 이 시대에서는 어떤 시민을 길러내야 하는가도 논의해야 할 대상이다.

어떤 시민을 길러야 하느냐를 논의하기에 앞서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을 상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하는 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받은 인간을 상정하는 일은 교육하기 이전에는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준점이 되고, 교육한 이후에는 교육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목적과 과정 그리고 평가방식까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받은 인간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두고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왔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교육이론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교육받은 인간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 '자율적 인간(frustrated autonome)' 혹은 '자유인(free men)'일 것이다. 전자가 화이트(J. White)의 관점을 대표한다면, 후자는 피터스(R. S. Peters)와 허스트(P. Hirst)의 관점이다.

교육받은 인간에 대한 논쟁은 대표적으로 엘리트적 인간인가 대중적 인간인가, 남성적 인간이나 여성적 인간인가, 이론적 인간인가 실천적 인간인가 등으로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에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간헐적으로 논쟁이 이루어지는 주제이다(유재봉 · 임정연, 2007: 36). 예컨대, 피터스와 허스트의 '자유인'은 전자의 입장을 대표하는 인간상이다. 그는 지식의 형식에서의 입문을 통해 합리적 마음의 계발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써 지식과 이해 그리고 지적 안목을 추구하는 교육을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이성과 합리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감정과 정서에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러한 평가는 나딩스(2002)를 중심으로 여성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또한 맥킨타이어 사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후기 허스트는 실천적 인간으로 교육받은 인간을 다시 규정하기도 하였다.

맥킨타이어는 피터스와 허스트 그리고 화이트와 직접 교육적 맥락에서 교육받은 인간에 대한 논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교육받은 공중의 아이디어」(The Idea of an Educated Public)라는 논문에 나타난 교육받은 공중은 또 다른 형태의 교육받은 인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맥킨타이어의 교육이론은 주로 정치철학과 도덕교육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시민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는 맥킨타이어의 교육적 아이디어가 사회적 실제에의 입문을 통해 교육받은 공중을 양성하는 데에 있다는 유재봉(2001a)의 연구에서 착안하여 교육받은 공중과 시민교육간의 관련성을 고찰해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맥킨타이어를 기존의 관점과 다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오늘날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이론으로 자리 잡은 자유교육 아이디어에서 추구하는 '교육받은 인간'이 세계시민교육 측면에서 가지는 한계를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맥킨타이어의 아이디어인 '교육받은 공중'의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앞의 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찾음으로써 진리로서의 신앙의 본질에 가까운 입장이 무엇인지 밝힐 것이다.

## II.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1. 세계시민교육의 의미

오늘날 교육의 목표는 '시민'의 육성이다. 그러나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상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의견을 모으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민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개인적 영역에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정의해야하는지를 다루기 이전에 시민성이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시민성(citizenship)'이란 어원적으로 시민이라는 'citizen'과 자격, 자질을 뜻하는 'ship'의 합성어이다. 즉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을 뜻한다. 이는 개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러기보다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요구되는 자질이다. 구체적인 자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민성 개념 자체에 대한 정의 방식도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그것에 걸 맞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실천과 참여하는 것, 그리고 시민적 덕성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시민교육은 그러한 시민성이 올바르게 함양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세계시민에서의 '세계'와 '시민'이라는 용어는 각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민사회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시민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특수한 공동체를 넘어 세계와 지구를 포괄하는 영역에 속한 시민을 말한다. 세계시민주의라는 것이 역사적 뿌리가 없이 갑자기 생겨난 개념은 아니다. 세계시민주의의 담론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 뿌리를 찾는다. 공동의 보편적 문화와 사회기반이 점차 형성되어 폴리스를 초월한 세계시민주의와 개인주의적 경향을 띤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세계의 시민'이라고 말한 견유학파(cynic)와 우주론적 정치 이론 및 법 이론을 발전시킨 스토아학파에 이르러 철학적 세계시민주의 기초가 형성되었다(김진희, 2015: 62). 근대 시대에 이르러서도 견유학파와 스토아학파의 면모가 보인다. 루소는 정의로운 국가 간 질서는 우선 좁은 자기이익의 관점을 벗어난 시민들로 이루어진 공화국들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았고, 칸트는 더 나아가 인간 역사의 종국적 성취는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사회(세계시민사회)를 이룸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보았다(김혜숙, 2014: 97).

### 2. 세계시민교육과 교회의 시민교육의 필요성

교회에서 시민교육을 해야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사회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70-80년대의 독재정권에 대한 정치적 투쟁과 저항의 시기를 지나 형식적, 제도적 측면에서 민주적 사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전히 복합적인 위험요소들로 인해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여전히 정치참여 저하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소통의 부재, 준법정신, 부정부패들로 인해 아직도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신두철·허영식, 2008 : 13-27).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실천이 개인주의화될 경우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교육의 당위성이 비단 세속 사회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서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 신앙인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

에 하나님이 현실세계와 연대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인으로써 현실세계 가운데 역할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사회의 한 축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기 위해 일반교육 또는 공교육의 현상에서의 민주 시민교육과 더불어 기독교적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사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장신근, 2009 : 110).

### III. 자유교육의 한계와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 1. 자유교육에서의 교육받은 인간의 한계

화이트의 관점에서 자율적 인간은 각자 선호하는 삶의 방식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욕구 충족적 관점에서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인간을 말하는 것으로, 화이트는 자기가 선택한 대상에 대해 스스로 비판적 반응을 거친 욕구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람은 자유민주국가에서 추구해야 하는 인간으로, 공동체의 성격 때문에 그가 의도한대로 선택을 할 수 없는 타율적 인간(unimpeded heteronome)과 대비된다(이지현·김희봉 역, 2002: 52).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자율성에 근거한 교육목적이 보편적인 교육목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자율성이 비록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합한 교육목적이 될 수 있으나, 자율성이 강조되지 않는 사회에서도, 예컨대 전통사회, 유교적 사회, 원시 사회, 종교적 사회에서도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화이트의 교육관의 한계는 무엇인가? 시민이라는 개념에 이미 도덕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이트가 도덕성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화이트는 도덕적 요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최소주의의 도덕성과 최대주의의 도덕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의 도덕성이 화이트가 견지하는 입장이다. 전자가 도덕을 금지 및 ‘지금/이곳의 재난에 대한 즉각적 구제’로 한정시키는 최소주의라면, 후자는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의 잘삶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개인이나 정부의 무한 책임을 주장하는 최대주의이다. 이 중에서 최소주의의 도덕성에 자신의 입장을 한 정한 이유는 논리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그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기독교 정신의 퇴조로 인하여 삶 전체를 도덕화하려는 경향이 약해졌다고 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삶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도덕성을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의 잘삶이 도덕성, 이타성과 충돌하지 않고 양립 가능한 지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도덕성의 범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즉 다른 사람의 잘삶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이긴 하지만 화이트는 이를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이트는 도덕교육을 버리고 이타주의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서 이타주의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이타주의다. 화이트의 입장에서 이타주의 교육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는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우선 화이트가 제안하는 이타주의의 교육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화이트는 자기이익적 행위와 이타적 행위가 분리된 별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목적을 지닌 활동 속에서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분리주의적 입장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화이트는 비분리적인, 통합적인 교육을 제시한다. 통합교육은 개인의 잘삶을 추구하면서도 타인들의 잘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

함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관점은 분리주의의 교육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리주의는 아동의 이타적 욕구와 이기적 욕구를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항상 갈등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주의자의 교육은 학생들이 이타적이 되도록 양육될 것이나 그들의 이타적 욕구들은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과 전혀 별개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다(이지현 · 김희봉 역, 2002: 112). 그는 이것이 실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분리주의를 떠나 통합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잘살의 개념 속에 ‘이타주의’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화이트는 공동체 전체의 잘살보다는 개인의 잘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이익이 전체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에 대한 배려는 자신의 욕구 내에 있을 때에만 발휘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화이트의 관점에서 교육받은 개인이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개인의 잘살 속에서 공유되는 타인의 잘살에 한해서이다. 즉 타인의 이익에 대한 배려가 개인의 잘살과 관련이 없거나 혹은 개인의 잘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시민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다소간 소극적인 교육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공동체와 자신을 함께 변화시킨다. 그런데 화이트의 교육관에서 사회적 실천은 개인의 잘살에 기여할 때에만 가치 있게 다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관점은 개인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회적 참여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타주의 교육은 개인이 가지는 시민으로써의 정체성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터스와 허스트의 자유인은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 내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는 자유교육에서의 자유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자유교육은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좋은 삶’을 합리성을 추구하는 삶으로 해석함으로써 합리적 마음의 계발을 통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교육이다. 여기서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곧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정신적인, 지적인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한다. 즉 자유교육은 진리 혹은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의 활동을 통해 실재를 인식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을 오류와 환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교육받은 인간의 의미를 다소간 좁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주로 합리성은 합리주의적 전통에 의해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는데, 이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합리적인 마음의 계발을 통해 영혼 전체의 발달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자유주의의 교육관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합리성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화이트의 욕구 충족적 관점에 근거한 자율성은 특정 사회, 즉 자유 민주주의 사회라는 맥락에서라도 설득력 갖는 반면, 합리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자율성은 보편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어느 사회에서도 통용되지 못하는 ‘탈맥락적’ 특성을 보인다(유재봉, 2001b: 153).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자율적 인간’ 혹은 ‘자유인’을 교육받은 인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시민주의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다소간 한계가 있다. 첫째, 자율적 인간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라는 특정 사회에서 교육 목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자율성이 강조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둘째, 자유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써, 합리성보다 자율성의 가치가 우선시 여겨지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어느 사회에서도 교육목적으로 수용되기는 어렵다.

## 2.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시민사회에서 교육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교육받은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아이디어를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Educated Public)’ 개념에서 빌려오고자 한다.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의 아이디어는 자유주의 혹은 계몽주의 전통에 의해 잃어버린 공중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다. 교육의 맥킨타이어가 따르고 있는 교육의 양대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거의 모든 곳의 거의 모든 교육 목적 중 하나이다. 그것은 젊은이들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종의 역할이나 기능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중략)… 두 번째 목적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18세기 계몽주의에서 부흥한 특유의 형식이다. 그것은 젊은이들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법,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법, 칸트가 ‘계몽’을 이해했던 것처럼 계몽하는 법 가르치는 것이다.(MacIntyre, 1987: 16)

맥킨타이어가 언급한 교육의 핵심적인 두 목적은 언뜻 보기에 서로 상반되는 목적으로 보인다. 첫 번째 교육 목적은 사회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기존 질서를 아동이 받아들여 하야 사회화시키는 데에 방점을 둔다면, 두 번째 목적은 어떤 특정 사회적 맥락과도 분리된 이성적 인간의 자율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데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현대 교육체제에서는 교육의 양대 목적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19세기 후반을 지나 도덕철학이 상황적 맥락성을 간과하고 논리적 추상화의 측면만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중이 사라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세기 이후 도덕철학이 특수화되고 전문화 된 문과 학문 체계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도덕철학자들의 기능들, 즉 모종의 사회적 집단들에 도전하거나 그들과 토론하는 사회적 기능을 잃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유주의 혹은 계몽주의의 체제가 아닌 현대 후기계몽주의 사회와 문화에서 교육의 양대 목적이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교육받은 공중의 전형을 18세기 스코틀랜드의 대학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맥킨타이어는 ‘아동을 그들에게 적합한 사회적 역할이나 직업을 찾도록’ 도우면서 ‘그들 스스로 그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의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곳에 교육받은 공중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맥킨타이어는 사회가 공유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구성해 가는 ‘교육받은 공중’을 양성할 것을 주장한다(유재봉, 2001a: 242). 이러한 입장은 사회에 이미 내재해있는 공동선을 수용함으로써 이제까지 살아온 터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토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전 세계가 공유하는 사회공간에서의 새로운 덕 개념을 발달시킬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맥킨타이어는 사회가 공유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구성해 가는 ‘교육받은 공중’을 양성할 것을 주장한다(유재봉, 2001a: 242). 이러한 입장은 사회에 이미 내재해있는 공동선을 수용함으로써 이제까지 살아온 터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토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전 세계가 공유하는 사회공간에서의 새로운 덕 개념을 발달시킬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은 개인적인 마음의 발달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자유교육의 그것과 다르다. 그리고 교육받은 공중은 특정 사회에 국한되는 인간이 아니라 세계 시민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공동체의 덕을 추구하고 동시에 만들어 나가는 주체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자유주의 교육과 자유교육은 다르다는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자유주의 교육체제에 반대하며 교육목적을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목적에 잘삶의 사회적 차원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자유교육과도 비교될 수 있다. 자유교육에서의 교육목적인 ‘잘삶(well-being)의 추구’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인류 공동체의 잘삶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유교육의 일차적인 관심은 다소 개인적 차원에서의 잘삶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맥킨타이어의 아이디어는 개인적 차원을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자유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받은 공중은 특정 사회, 이를테면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국한되는 인간이 아니라 어떤 사회이건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에 의하면, 교육받은 사람은 언제나 공유하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전통은 내적으로 계속되는 논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전통간의 갈등과 토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유재봉, 2001a: 239). 그러므로 교육받은 공중은 공동체의 덕을 추구하고 동시에 만들어나가는 주체로서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는 세계시민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육의 대상을 개인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는 시민교육의 목적과 합치될 수 있는 것이다.

#### IV.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시민교육과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 1.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민교육

교회나 기독교 대학들의 교육목적에 반영되어있다시피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적 정신, 신앙과 영성,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극복하고 본래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뚜렷한 방향성은 이미 개인적 차원은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를 상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민은 단순히 민주사회 혹은 시민사회의 시민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세속 사회의 시민’은 어떻게 다른가?

세속 사회의 흐름은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인정하는 포스트모던사회이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다원성은 교회가 오히려 개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 속에 상이하고 다른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연대하는 형제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제애는 ‘네가 나의 집을 들어주면 나도 너의 집을 들어주겠다’는 상호 호혜적 관계가 아니며 또한 타율적 관계가 아닌 타자의 한계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기초로 한 개방적 친교를 의미한다(고수진, 2015 :283). 따라서 공동체적 교육과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써 가지는 형제애를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기도 하며 상반된 신념과 가치를 지닌 현실세계와 연대하며 신앙인만의 구별된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신앙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서 신앙인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가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확립되어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예수의 사랑을 확장시켜 이타적 인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교육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종교교사이며 목사인 볼프강 크뢰거 박사는 기독교가 현대 독일사회의 다양함과 복잡성을 인정하고 타종교와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해 독선을 탈피할 것을 권고하였다(오영훈, 2009: 36).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 기독교가 먼저 다른 종교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배려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상호인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서 존중하고 타인을 무시하거나 지배 논리에 빠지지 않으면서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 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독교가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수의 정신과 일치를 이루어가며 다양한 맥락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2. 기독교적 관점에서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

자유교육의 대안으로써 맥킨타이어의 교육사상이 기독교 교육에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삶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계획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부각시켜 인간 이성에 관한 맹목적인 신념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자유교육은 자유를 다소간 자유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의 자유로 의미를 좁혀 해석하기 때문에 합리성과 합리적 마음의 계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유교육의 인간관에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이 깔려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율성에 기초하여서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이 모호하다. 이와 달리 맥킨타이어는 인간이 존재하는 맥락과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한 채 무연고적 자아를 상정한 계몽주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도덕철학의 목적을 공동체의 가치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맥킨타이어의 논의는 자유교육이 제시하지 못했던 목적과 방향성의 중요성을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 나아가 공동체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중의 모습이 진리로서의 신앙의 본질에 보다 가깝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유교육에서는 다소간 잘살은 개인적 차원에서 설명한 바 있다. 화이트의 ‘욕구 충족적 관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욕구보다는 개인의 욕구를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요구와 개인의 욕구 충족의 상충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기보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맥킨타이어의 아이디어는 인간의 합리성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시간과 공간의 맥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자아를 상정하고 있다. 물론 맥킨타이어는 목적을 공동체적인 가치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개인적 차원보다는 인간 안의 이타적 인격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이타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이론으로 자리 잡은 자유교육 아이디어에서 추구하는 ‘교육받은 인간’이 세계시민교육 측면에서 가지는 한계를 고찰해보고, 새로운 대안으로써 맥킨타이어의 아이디어인 ‘교육받은 공중’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앞의 논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찾음으로써 교회에서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의 개념이 진리로서의 신앙의 본질에 가까운 입장임을 밝히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는 개인을 특정 사회에 국한되는 인간이 아니라 세계시민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본다. 맥킨타이어의 관점에 따르면 ‘교육받은 공중’은 사회가 공유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구성해 간다. 이러한 입장은 사회에 이미 내재해있는 공동선을 수용함으로써 이제까지 살아온 터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토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개체화되고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지위에 맞는 책임을 가지고 사회의 문제에 참여하고 시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시민교육이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자유주의 교육관은 세계시민주의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한계를 지닌다. 우선 화이트가 교육에서 추구하는 좋은 삶은 ‘자율적인, 나와 타인이 공유하는 잘살’이다. 자율적인 삶은 그가 공동체 전체의 잘살보다는 개인의 잘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이 전체의 이익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보기 때문이다. 한편 나와 타인이 공유하는 잘살은 인간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



인의 잘살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으며, 자기이익적 행위가 꼭 타인에 대한 이익을 위한 행위와 대립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타인의 이익에 대한 배려는 자신의 욕구 내에 있을 때에만 발휘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화이트의 관점에서 교육받은 개인이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개인의 잘살 속에서 공유되는 타인의 잘살에 한해서이다.

한편, 피터스와 허스트의 교육목적인 자유인은 외적인 자유가 아니라 내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는 자유교육에서의 자유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자유교육은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좋은 삶'을 합리성을 추구하는 삶으로 해석함으로써 합리적 마음의 계발을 통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자유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써, 합리성보다 자율성의 가치가 우선시 여겨지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어느 사회에서도 교육목적으로 수용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맥킨타이어의 '교육받은 공중'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시민교육에의 함의를 가진다. 첫째, 다양한 맥락을 허용하는 교육목적 제시할 수 있다. 현대의 인간은 살고 있는 지역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받으면서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즉 우리는 현재 발을 딛고 있는 특수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처럼 사회에서 복잡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다양한 맥락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관계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정체성을 각기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포스트모던사회에서는 특정한 맥락에서만 받아들여지는 가치-이러데면 욕구 충족적 관점에 기초한 자율성-가 아니라 다양한 맥락을 허용하는 교육목적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시민사회에서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율성이 가져오는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공적인 도덕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자율적 인간' 혹은 '자유인'은 외적·내적인 간섭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추구하므로 다양한 사회적 맥락이 혼재된 세계시민주의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도 없을뿐더러 그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마다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맥킨타이어는 기존의 공동체의 선을 수용하되, 토론과 그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구성해가는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혼란한 가치들이 화해할 수 있는 지점을 열어놓았다.

더 나아가 맥킨타이어의 아이디어는 다원성 속에 잃어버렸던 목적과 방향성을 강조하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인간의 삶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계획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부각시켜 인간 이성애 관련 맹목적인 신념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 나아가 공동체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중의 모습이 진리로서의 신앙의 본질에 보다 가깝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교회가 사회의 한 축으로써 공교육과 더불어 기독교적 민주시민교육의 당위성을 제공해주며 형제애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의 정신을 통해 현실세계와 연대를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사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 참고 문헌

- 고수진(2015). “이타적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교육목회”. 기독교교육논총 Vol.42. pp.271-296.
- 김명정(2012).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천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Vol.44 No.2. pp.1-28.
- 김영석(2013). “제 6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 국민에서 시민으로”. 사회과교육연구 Vol.20 No.2. pp.13-28.
- 김진희(2015). “세계화의 양면성과 세계시민주의 전망”. 시민교육연구 B
- 김혜숙(2014). 세계시민사회와 평화의 정초. 철학과 현실, 92-104.
- 유병열(2004). 『도덕교육론』. 양서원. p.165. Vol.47. No.1. pp.59-88
- 유재봉(2001a). “맥킨타이어의 교육사상 : ‘교육받은 공중’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Vol.23 No.2. pp.227-243.
- 유재봉(2001b). “화이트의 자유교육론의 비판적 검토”. 교육철학 제26집. 143-162.
- 유재봉 · 임정연(2007). “‘교육받은 인간’에 대한 논쟁 검토: Peters에 대한 Martin의 비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Vol.25 No.4. pp.35-39.
- 장신근(2009). “교회의 민주시민교육-공교회와 공적 신앙의 관점에서-”. 기독교교육논총 Vol.21. pp.109-152.
- J. White (1990). Education and the Good Life. KoganPage. 이지현 · 김희봉 역 (2002). 『교육목적론』. 학지사.
- MacIntyre, A.(1987). The idea of an educated public, G. Haydon(ed.). Education and values: the Richard Peters lectures. London: University of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 Peter, R. S.(1966). Ethics and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이흥우 · 조영태 역 (2003).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pp.222-223.
- Peter, R. S.(1981)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p.52.